

회 의 록

(2015학년도 제1회 등록금심의위원회)

□ 일 시 : 2016. 1. 21.(목) 16:00

□ 장 소 : 기획조정과 소회의실

□ 참석현황

○ 참석자

- 위원(8명) : 위원장 강혜정, 재정분야교원 000, 교직원위원 000, 학생위원 000, 학생위원 000, 학생위원 000, 학생위원 000, 학부모위원 000

- 간사(2명) : 재무팀장 000, 재정관리팀장대리 000

- 배석(1명) : 기획조정과 000

○ 불참자(2명) : 평의원회 대표 000, 외부전문가 000

□ 안 건 : 2016학년도 전남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심의

□ 심의 사항

1. 개회 선언

⇒ 총 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기에 개회를 선언함.

2. 전차 회의록

⇒ 간사로부터 전차 회의록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원안 통과함.

3. 2016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 위원장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소개함.

○ 위원장 :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사업 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함.

-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주요사항 및 2015학년도 우리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내역을 설명하였고, ‘16학년도에도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자체 노력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함

○ 위원장 : ‘2016학년도 대학회계 예산 편성 세입·세출 수지’에 대하여 설명함.

- 총 5회에 걸쳐 예산편성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하여 ‘16학년도 세입·세출 수지를 조정하였으나, 재정여건으로 인해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 많으며, 특히 ‘16학년도 국가장학금 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를 위한 대응장학금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못한 상황임을 설명함.

○ **위원장** : 회의자료에 의거 ‘2016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일반대학원 1.4%인상, 전문·특수대학원 동결)에 대한 의견을 주실 것을 요청함.

- 간사: 주요 국립대학 일반대학원의 등록금 수준에 대해 설명함.
- 학생위원: 주요 국립대학의 등록금 수준을 봤을 때 일반대학원만 특별히 인상해야하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반대입장을 표명함.
- ○○○: 추가 세출요인 발생에 따라 세출 조정과정에서 아직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 많아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함.
- ○○○: 일반대학원의 교육원가 측면에서 봤을 때 학부에 비해 높은 편이며, 풀타임 학생들의 경우 장학금 등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생의 등록금이 대학원생에게 지원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대학원생에 대한 추가 부담이 필요함.
- 학생위원: 주요 국립대학과 등록금 수준을 봤을 때 우리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 학교 규모의 차이에 따라 학생 수가 많은 부분이 반영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등록금 규모는 높을 수밖에 없음. 인상요인은 분명하나 계열별로 금액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학생위원: 대학(원) 등록금 인상 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함.
- 간사: 세입·세출 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국가장학금 II 유형 추가확보를 위한 대응장학금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임을 설명함.
- ○○○: 최근의 물가상승률이나 등록금 인상억제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 세입세출 수지를 이미 조정한 상황에서 추가 세입재원 마련을 위해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료됨.
- ○○○: 대학원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원생 모집을 위한 지원 계획을 추가 검토할 것임.
- ○○○: 대학원 등록금이 인상된다면 인상분은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 풀타임학생들에 대한 지원액을 1/n로 검토해본 결과 대학원생들의 경우 등록금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임.

(5분간 정회를 선언함)

○ **위원장** : 학생위원들의 정리된 입장을 요청함.

- 학생위원: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은 대학원 교육부분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 학부와 대학원 지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대학원

인상분에 대한 인상분은 대학원에 대한 세출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업료2 기준으로 1.7% 인상하기로 함. 총액기준 1.4% 인상하기로 함.

◎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대학(원)에 대한 ‘일반대학원 1.4% 인상(수업료 총액기준, 수업료 2기준 1.7%)(안), 전문·특수대학원 동결’에 대하여 원안대로 확정하자는 의견을 묻고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함.

○ 위원장: ‘학부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설명함.

- 위원장: 학부 등록금은 동결(안)이며, 다만 특정계열의 등록금이 주요 대학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계열 간 차등 인상·인하를 통해 평균등록금을 동결하는 안임.
- 학생위원: 계열 간 차등 인상·인하에 대해 단과대학 학생들과 논의했으나, 전체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계열간 차등 인상·인하를 반대함. 아울러 세입·세출 조정과정에서 이월금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월금 만큼 등록금 인하를 요청함.
- ○○○: 이월금 증액은 ‘16학년도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15학년도 예산 집행을 제한하여 발생한 세입재원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재정여건 상 어쩔 수 없이 재정집행을 제한한 것으로 실제 이월금이 증액한 금액만큼 발생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임.
- 간사: 현재 재정집행을 제한하여 분임기관별 재정집행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상황임.
- ○○○: 특정 계열의 등록금 인상을 통해 기타 계열의 등록금 인하는 수익자들이 반대한다면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함.

(5분간 정회를 선언함)

- 위원장 : 계속 논의를 요구함
- ○○○: 기관운영경비 50% 삭감, 주요사업비 25%삭감 등 세출을 대폭 조정한 상황이고 세입부분에 발전기금 추가확보분 까지 포함되어 있어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고 생각함.
- 간사 : 학생들 입장에서 인하는 당연한 요구사항이나 국가장학금 도입이후 등록금 인상은 불가능하며, 대학재정 여건 상 등록금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월금을 예측하였지만 변동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 인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위원장: 이월금 예측에 대한 세부내역을 학생위원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함.
- ○○○: 추후 이월금 예측 내역에 대해 설명하겠음.
- 학생위원: 입장변화는 없으며 입학금 및 졸업유보 및 수료비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요청함.
- ○○○: 졸업유보 및 수료비 등에 대한 사항이 등록금심의위원회 사항인지 재정위원회 논의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함.

- 학생위원: 졸업유보비 및 수료비에 대해서도 등록금으로 생각되므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학생위원: 국가재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명의의 국가 재정지원 요구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국가재정지원 요구서에 대한 서명은 각 위원별로 판단할 사항으로 입학금, 졸업유보 및 수료비에 추가 논의 사항은 2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2015학년도 제1회 전남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함.

- 대학(원) 등록금 책정: '일반대학원 1.4%인상(수업료총액기준, 수업료2기준 1.7%인상), 전문·특수대학원 동결' 단, 인상분에 대해서는 대학원 교육재원으로 활용
- 학부 등록금 책정: 차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차기 등록금심의위원회는 1. 22.(금) 16:00에 개최하기로 함.

2015. 1. 21.

작성자 : 기획조정과 한 영 석

확인자 : 위원장(기획조정처) 강 혜 정